



# 경상북도의회 김희수 도의원, 청년 주거부담 완화 사업 확대 필요

### 청년 입맛에 맞는 다양한 주거정책 마련해야

경북도의회 김희수 도의원(포항, 국민의힘)은 지난 30일 행정보건의복지위원회 지방시대정책국 2024년 예산안 심사에서 경북도의 청년주택 주거지원 사업에 대한 재검토 및 예산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신청자가 적어 23년 9월 기준 예산 집행률이 40%로 유명 무실하며,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한

시 국비사업으로 24년 12월 사업이 종료되면 경북도의 청년 주거지원 정책에 공백이 생기게 되어 청년 주거 정책에 대한 경북도의 정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인 청년은 주거비 부담으로 옥탑방과 같은 열악한 주택을 선택하거나 외곽 지역에 주택을 마련해 원거리 통학이나 출퇴근을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청년 행복주택의 경우 소규모

평형위주로 제공되고 있어 청년들의 주거에 대한 욕구를 충분히 채워주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젊은 인구의 주거지원 정책을 통한 인구 유입은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는 방안임을 강조"하며, "청년 주거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수요자의 입장에 맞는 정책 마련과 예산을 확대 편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윤근수/기자



# 울산시의회, 제242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별 활동결과

### 2024년 예산안,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계수조정 등 실시

울산시의회는 제242회 제2차 정례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1일에는 상임위원회별 2024년도 예산안, 202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계수조정 등을 이어갔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문석주)는 경제자유구역청, 차량등록사업소시장 및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 등을 실시했다.

교육위원회(위원장 홍성우)는 2023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 운용계획안, 2024

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함께 계수조정 및 확정회계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황규진/기자



# 부산시, '서울공화국' 잔치에 강건너 불구경 말고 '부울경 특별연합 재추진' 앞장서라!

### '문지마 서울키우기'에 묵묵부답 침묵 일관하는 부산시, 구체적 입장 밝혀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반선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오늘(24일) 5분자유발언을 통해 서울공화국에 맞서 무력한 지방소멸을 벗어날 수 있도록 부울경 특별연합 재추진의 필요성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반 의원은 "우리나라는 지방소멸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그 원인은 수도권 집중화에 있는데 최근 정부여당의 '김포시 서울편입'은 부산을 더 초라하게 만들고 있다"며 맹비난했다. 또, "동남권을 키우자던 취지에서 출발한 메가시티가 갑자기 '서울키우기'에 나서고 있다며, 지금 우리 정치 논리와 정책의 방향은 윤석열 정부가 국정 목표로 하고있는 '지방시대'와는 역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는 '서울공화국' 잔치에 강건너 불구경하듯 침묵하고만 있다"며 구체적인 부산시의 입장을 밝혀 주기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일극체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추진한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초석이었던



부울경 특별연합이 지방권력 교체와 함께 사실상 좌초되고, 실체가 희미한 경제동맹을 출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부울경 특별연합이 계획대로 성사가 됐다면 전국 최초 사례로 우리가 염원하던 지방시대의 문을 열었을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다.

또, 반 의원은 "부산시가 경제동맹 추진 이후, 그동안 무얼 했는지, 진행하겠다는 행정통합은 가시적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며, 행정통합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최근 실시한 부산, 경남 행정통합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설문 대상자의 70%가 행정통합 논의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부정 의견도 우세하다며 대다수 전문가가 예상한 것처럼 행정통합이 쉽지 않음을 예고하고 있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반선호 의원은 "서울은 왜 더 커져야 하고, 지방은 왜 계속 희생해야만 하는 거냐"며 "지방소멸의 위기 속에서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지역 청년들의 한숨과 절망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호소하고, "부산·울산·경남이 함께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부울경 특별연합, 메가시티는 재추진되어야 한다"고 명확한 입장을 밝히며 발언을 마쳤다.

한편, 반선호 의원은 지난 2월 부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 안건'에 대한 반대토론을 나서며 안건 부결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찬반 토론 후 표결 끝에 부울경특별연합 규약 폐지안은 가결됐다.

김희태/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호진 도의원, '자율방범 활성화' 통한 지역사회 안전 도모

### '전라남도 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전남도의회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4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율방범대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맞춰 '전라남도 방범연합회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자율방범 활동의 체계적이며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자율방범대는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방범활동을 하는 대표적인 자원봉사조직으로 그동안 법적 근거의 부재로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다. 자율방범대법이 70년 만에 본격 시행됨에 따라 법정단체가 됐으며 현재 도내에는 총 349개의 방범대가 운영되고 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제명 '전라남도 방범연합회 지원 조례'를 '전라남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보조금 지원 절차를 명문화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였다. 또한 전라남도경찰청, 시·군,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자율방범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김호진 도의원은 "자율방범 활동은 지역 주민들이 주축이 되어 지역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활동"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자율방범연합회의 원활한 운영이 가능해져 지역 주민의 안전과 더불어 사회질서 유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자율방범 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2월 7일 제 37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박종배/기자

# 대구시의회, 각종학교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

### 대구온라인학교 등 각종학교도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해야

대구시의회 이동욱 의원(교육위원회, 북구5)이 각종학교에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현행 조례의 내용을 일부 개선·보완하고자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공립 유치원 및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1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학교운영위원회의 범위를 각종학교까지 확장하고 운영에 관한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해당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의 운영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는 분교장의

범위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추가하고 학생 수가 100명 미만인 각종학교 또는 모든 학생을 다른 학교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각종학교의 운영위원회 구성비율을 신설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이동욱 의원은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정책 결정의 자율성 및 민주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심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각종학교에도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하므로 이러한 개정사항을 조

례에 반영하고, 현실에 맞도록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 탄력성을 부여하고자 한다"며 조례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앞으로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각종학교 역시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각종학교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에 적극 기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 "청년이 행복하면 공공의 역할 다 한 것" 청년수당 원안 유지하라

### 5% 부정사용 때문에 지원 축소하는 건 정책 설계 및 안내 부족했던 서울시의 책임전가



일부 부정사용 이슈 및 현금성 사업관리를 이유로 예비심사 과정에서 60억 원 감액된 2024년도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해 당초 편성대로 지급을 유지하라는 의견이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일 열린 예결위 회의에서 "청년수당으로 인해 청년이 행복하면 서울시의 역할을 다 한 것이다"라며 "5% 부정사용은 서울시의 정책 설계 미비 및 홍보, 안내 부족에 따른 것인데 이를 이유로 지원을 줄인다면 서울시의 책임을 청년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저소득·미취업 상태의 취업취약계층 청년이 진로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2016년부터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청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클린카드 사용으로 제한업종에선 결제가 불가능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현금사용 후 영수증 제출 방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자기활동기록서에 이를 기재하

도록 하고 있다.

청년수당을 지급받은 대부분, 95%의 청년들이 잘 사용하고 있지만 일부인 5% 정도의 부정사용이 자기활동기록서를 통해 밝혀졌다. 청년들이 스스로 기록한 내용인만큼 악의적인 의도는 없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 최 의원의 입장이다.

최재란 의원은 "'지원하되 관여하지 않는다'가 평소 저의 지론이다"라며 "평소 사고 싶은 것, 하고 싶은 일을 어려운 형편 때문에 못하던 청년이 서울시 지원으로 그걸 할 수 있게 됐다면, 그로 인해 행복해한다면 서울시의 책임을 청년에게 전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최재란 의원은 "서울시가 할 일은 제대로 된 정책설계와 정확한 안내로 충분인데, 왜 개입하고 통제하려 하는가"라며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한 건 아끼없는 지원과 끊임없는 응원이다. 청년들을 보듬어 줄 청년수당 지급 규모를 원안대로 유지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최광수/기자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 1899.9659

대표이사: 박행민 | 편집국장: 최재은 | 부회장: 임성경 | 청소년책임기자: 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 등록일 2013-07-12 | 계호: 문화매일신문  
등록번호: 서울 가 50146 | 등록일: 2009-04-20 |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편집국: 02.2612.2959	정 치 부: 내선 (112)	문 화 부: 내선 (116)
광고국: 1899.9659	사 회 부: 내선 (113)	부 동 산 부: 내선 (117)
	경 제 부: 내선 (114)	오 리 언 부: 내선 (118)
	스 포 츠 부: 내선 (115)	지 방 부: 내선 (119)

서울특별시 개봉로 12길 9-19 로얄힐타운 102동 202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용인시, 하수 검사로 감염병 발생·추이 판단 등 가능...선제적 대응 기대

### 용인특례시-SCL '용인시민 건강 모니터링 연구' 결과 질병청 감염병 정보와 높은 상관관계



대도시 하수처리장의 하수를 검사해 코로나19나 인플루엔자, 급성설사 등의 발생 여부와 유행 추이를 파악하고 향후 유행 여부를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특례시는 전문 검사기관인 SCL(재단법인 서울의과학연구소)과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1년간 하수 기반으로 감염성 병원체를 분석한 '용인시민 건강 모니터링 연구' 결과 시내 생활하수의 코로나19와 호흡기바이러스, 설사바이러스 등의 농도 증감 추이가 뚜렷이 확인됐다고 3일 밝혔다.

이 추이는 질병관리청에서 매주 보고하는 병원체 및 매개체 감시정보와 80-90% 정도의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시가 공개했다.

이번 연구는 용인특례시 하수처리장

가운데 6곳의 유입수를 월 2회 채수해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호흡기바이러스(14종), 폐렴원인균(7종), 급성설사 원인 세균 및 바이러스(19종), 폴리오바이러스, 원숭이 두창 등 다양한 병원체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시행됐다.

이상일 시장은 "이번 연구는 주기적 하수 검사를 통해 지역사회의 감염병 출현이나 유행 여부를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은 감염병으로부터 시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시가 조기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연구를 주도한 SCL 기술혁신센터는 "병원체의 주간 검출이 증가하는 시기에는 채취한 하수의 바이러스 농도도 증가했으며, 병원체 검출이 감소한 시

기에는 바이러스 농도 또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구에는 살아있는 바이러스나 세균이 아니라 하수처리 과정에서 사멸한 바이러스나 세균의 DNA를 추출해 이용했다"며 "하수처리 과정에서 자동으로 멸균이 되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에서 감염 가능성은 없다"라고 말했다.

하수 검사로 감염병 발생이나 유행 여부까지 가려낼 수 있게 됐지만 하수를 통한 감염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SCL의 판단이다.

용인특례시는 SCL과의 이번 연구성과를 감염병 조기 감시나 예보·경보를 포함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에 반영하는 방안도 공동으로 강구할 방침이다.

생활하수 내 바이러스 농도 분석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감염병 발생 상황과 추이를 파악하고, 유행 예측까지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한편, 국내 최초 검사 전문기관으로 출범한 SCL 서울의과학연구소는 1983년 창립 후 40년 동안 진단검사 발전을 위한 혁신적인 검사 프로세스 도입과 체계적인 분석 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건강증진과 의학분야 발전에 기여해 왔다.

검사실과는 별도로 운영되는 SCL 연구센터는 전문의를 비롯해 여러 전문 연구인력이 포진돼 신규 검사법 개발은 물론 R&D, 동반진단사업 개발, 임상시험 지원 등 다양한 연구사업을 펼치고 있다.

김범상/기자

# 안산시, '제25회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 개최



안산시는 UN 지정 '세계자원봉사자의 날(12.5)'을 기념해 지난 1일 '가꿈 초심! 쉬어가도 괜찮아!'라는 주제로 '제25회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안산예술의전당에서 안산시자원봉사센터 주관으로 열린 행사는 자원봉사자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하고,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김대순 부시장과 운영 중 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및 자원봉

사자, 후원기업, 유관기관 등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국가수협회의 난타공연으로 올 한 해 동안 봉사활동을 담은 영상시청 및 우수자원봉사자 표창과 축하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또한, 로비에 옛 자원봉사 활동사진을 전시해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자신의 활동을 돌아보며 소통과 화합하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운영중 안산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은 "지역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활동하신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자원봉사자분들과 함께 지역사회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하고 사랑과 나눔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대순 부시장은 "어려운 여건에도 지역사회와 이웃을 위해 나눔과 헌신에 앞장 서 주신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봉사자들의 이웃사랑 실천이 지역사회 선한 영향력으로 확산돼 소통과 화합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정부/기자

# 의정부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포럼 개최

**의정부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포럼**

2023년 12월 11일 (월) / 15:00~17:00  
의정부 시청 대강당(본관 2층)

주최: 의정부시  
주관: 의정부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주요내용: 1. 의정부시 사회적경제 정책 방향성 안내 (의정부, 경기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2. 2023 사회적경제 정책방향 설명, 현안 및 공공구매 활성화 방안 제시 (의정부, 의정부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3. 2023 사회적경제 정책방향 설명 (의정부, 의정부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4. 2023 사회적경제 정책방향 설명 (의정부, 의정부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5. 2023 사회적경제 정책방향 설명 (의정부, 의정부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문의: 의정부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전화: 031-850-8542-3

의정부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12월 11일 오후 3시에 시청 대강당에서 '의정부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사회적경제 정책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 방향과 변화에 대응하고자 마련됐다. 의정부시 사회적경제 조직과 정보를 공유하며 사회적가치 확산을 통한 지속가능 방안을 토론했다. 이를 통한 기업의 판로 및 공공구매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1부에서는 '경기도 사회적경제 향후 전략 방향성 안내'를 주제로 이성빈 경기도사회적경제원 혁신담당관의 발표 및 질의응답을 한다. 2부에서는 '2023년 사회적경제 정책변화 상황 분석 및 판로개척과 공공구매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박영민 경기사회적경

제센터협의회 부회장이 발표한다.

이어지는 지정 전체 토론에서는 김만수 신한대학교 대학원 교수와 좌장을 맡고 발제자 2명을 포함해 송준성 의정부시사회적경제연대 회장, 이명순 (사)의정부사회적경제협회 회장, 백정희 의정부문화재단 문화도시지원센터 사무국장이 패널로 참여해 토론한다.

김동근 시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관련 정책에 큰 변화의 상황을 공유하고 시와 산하기관 및 민간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할 것"이라며,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의 역할은 무엇인지 고민하는 자리로,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2023 죽변항 수산물축제**

가자, 죽변! 먹자, 수산물!

2023. 12. 15(금) ~ 17(일) 울진군 죽변면 죽변항일원

주최 | 울진군 | 주관 | 울진군축제발전위원회 | 후원 | 안수협 울진지부 | 안수협 울진지부 | 안수협 울진지부

초대가수

안성훈 | 요요미

# 이천시 '찾아가는 전세피해 및 주거복지 상담소' 운영

**찾아가는 전세사기 피해 및 주거복지 상담소**

분야별 전문가의 맞춤형 상담 (변호사, 법무사, 주거복지상담사)

연속: 12월 11일 (월) - 2023년 12월 11일 (월) / 10:00 - 17:00

대상: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분 또는 우려하는 분, 공공임대 주택과 관련한 정보 필요 분, 직할, 일직리 수매를 받고 싶은 분, 신축주택 지원 필요 분, 임대료 지원 필요 분

주요내용: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피해 구제 방안 설명, 공공임대 주택 입주 자격 및 신청 방법 설명

참가비용: 무료 (신청서 작성, 상담, 법률 상담)

문의: 이천시 주거복지센터 | 전화: 031-442-2000

층 대회의실에서 오전 10:00부터 17:00까지 7시간 동안 운영되는데 경기도에서 일선 시군에 직접 상담소를 운영하는 것은 이천시가 처음이다.

그동안 이천시는 이천시 주거복지센터 내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두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적극 장려하고, 그에 따른 지원정책을 안내한 바 있다. 그러나 현행 특별법에서 피해자로 인정받는 조건도 복잡하고 상담소가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 대부분의 전세 피해자들이 다가 서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이천시는 경기도 주거복지센터(전세피해지원팀 등) 및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조하여 변호사, 법무사, 주거복지 상담사 등의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실질적으로 피해복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적 절차와 피해복구 사례를 개별 맞춤형 상담 안내를 통해 돕는 상담소를 운영하게 된 것이다. 이는 평소 법률 상담에 대하여 고전적, 심리적 부담을 느끼는 피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세피해상담소와 연계하여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주거복지상담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안내 상담과 신

용회복위원회에서 신용 문제로 고통받는 채무자들의 신용회복지원제도에 관한 상담, 아울러 이천시 자활센터의 취업에 관한 상담을 진행할 예정으로 주거와 생계에 불안함을 느끼고 정보가 필요한 분들에게 다양한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이천시는 대도시의 전세사기피해자 수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지만 동일 유형의 전세사기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특별법에서 지원하는 정책 외에도 이천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상담을 실시할 수 있으니 많은 시민들이 상담을 통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기관을 초빙하여 이천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연 2~3회 이상의 상담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범상/기자















# 더 든든하고, 더 행복한 노후 생활...영등포구, '백세건강 어르신 일자리' 모집

### 169억 원 예산 투입...노노케어, 인생100반, 경로당 중식 도우미 등

영등포구가 12월 22일까지 '2024년 백세건강 어르신 일자리 사업' 참여자 3,961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백세건강 어르신 일자리'는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 생활과 소득 증진, 사회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내년에는 국·시·비 포함 총 169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영등포구청, 영등포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 등 10개 수행기관, 56개 사업단에서 참여자를 모집한다.

모집 유형은 ▲노노케어, 스쿨존 교통 지도 등 '공익형' ▲인생100반, 꽃할매네 푸드트럭, 시니어북카페 등 '시장형' ▲시니어 보조교사, 시니어 서포터즈 등 '사회서비스형' ▲경로당 중식 도우미 등 '영등포형'으로 나뉜다.

특히, 내년에는 신규 일자리로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식을 나눌 수 있는 ▲견견견지 재활용사업단 ▲장기요양기관의 업무를 지원하는 '희망나눔단' ▲유치원 보육 교사를 보조하는 '아이사랑 실버 선생님' ▲동행식당과 연계한 '인생100반' 등이 운영된다.

모집 기간은 12월 4일부터 12월 22일까지이다. 모집인원 미달 시에는 모집이 완료될 때까지 신청을 받는다. 권

무 기간은 10개월~12개월이다.

모집 대상은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이나, 사업 유형에 따라 60세 이상 기초연금 미수급자도 참여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생계)수급자,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참여가 불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신분증, 참여신청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 구비 서류를 지참해 각 수행기관에 방문 접수하거나 온라인(복지로, 노인일자리)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참여자는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사업 운영지침 선별기준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되며, 최종 선발자는 접수처에서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영등포구청 어르신상담인교 또는 각 수행기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통해 삶의 보람과 즐거움을 느끼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시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운영해 노인 복지 향상에 지속적으로 힘써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박황신/기자



# 금천구, '어르신 일자리' 3,567명 모집... 전년 대비 8.6% 증가

### 전년 대비 8.6%(283명) 증가, 42개 사업 3,567명 모집

금천구는 12월 4일부터 15일까지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2024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3,567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분야는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참여하는 '공익활동',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형', 사업 수익으로 운영하는 '시장형', 수요처의 요구에 맞는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연계해 주는 '취업알선형' 4가지다.

'공익활동'은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가 참여할 수 있으며, 지하철역사 환경 미화, 초등학교 중식 배식 업무 등 21개 사업, 2,479명을 모집한다. '사회서비스형'은 65세 이상(일부 사업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며, 지역사회돌봄, 안전, 공공시설 행정업무 지원 등 10개 사업, 604명을 모집한다.

'시장형'은 60세 이상이 참여할 수 있으며, 편의점, 카페 등 10개 사업 356명을 모집한다. '취업알선형'은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민간업체에서 근무할 128명을 모집한다. 취업알선형은 내년 1월 8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은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명함판 사진, 기초연금수급자확인서(공익활동에 한함) 등을 지참하고, 수행기관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수행기관은 금천시니어클럽, 금천노인종합복지관, 금천호암노인종합복지관, 청담종합사회복지관, 금천누리종합사회복지관, (사)대한노인회 금천구지회다. 사업내용 및 접수처(수행기관)는 금천구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정부 부처 및 지자체



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사업 2개 이상 참여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알선형은 제외)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는 신청할 수 없다.

참여자는 소득 수준 등 선별기준표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선정하며,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한편 금천구는 11월 23일부터 30일까지, 총 8회에 걸쳐 올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한 어르신 3,284명을 초대해, 한 해 동안의 성과를 돌아보고 격려하는 사업 평가회를 개최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어르신의 안정적인 소득과 사회활동을 위해 전년 대비 8.6% 증가한 일자리를 확보했다"라며,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박황신/기자

# 서울 중구 홈즈리더, 공동주택 활성화 붐업 시동!

### 공동주택 입주인 대표 홈즈리더 37명 위촉, 구와 입주인의 중간다리 역할 기대



서울 중구가 공동주택 주민대표 '홈즈리더'를 위촉하고 공동주택 활성화를 위해 시동을 걸었다.

구는 아파트 단지별로 입주인을 대표하는 1인을 추천받아 홈즈리더 37명을 선정하고 지난달 30일 신당누리센터에서 홈즈리더 워크숍을 열었다. 홈즈리더는 김길성 중구청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은 후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강의를 들으며 첫 활동을 시작했다.

중구 전체 인구 약 12만 명 중 절반에 가까운 56천6백여 명이 69곳의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앞으로 홈즈리더는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의 기획부터 실행까지 구청과 입주인의 중

간 다리 역할 활약할 전망이다. 월 1회 이상 간담회에 참석해 세부 사업 선정, 주민 의견 수렴, 참여 주민 모집 홍보 등의 활동으로 공동체 소통이 원활해질 것으로 구는 기대하고 있다.

홈즈리더 활동이 활발한 아파트 단지에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구는 해당 아파트에 공동체 운영 전문가 컨설팅을 우선하고 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 문화행사 등에 우선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이 밖에도 구는 아파트 입주인을 위해 △안전교육(화재 예방, 승강기 안전, 호신술) △문화예술활동(평생학습, 음악회, 축제) △환경교육 및 정비(재활용 및 자원순환 교육, 유희공

간 녹화사업) △건강관리(대상중후군 및 만성질환 예방) 등 풍성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내년 예산 편성이 확정되면 홈즈리더의 신청을 받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10월부터 아파트 단지 8곳을 방문하여 진행하고 있는 '찾아가는 평생학습 우리집 학교', 11월 세운푸르지오 헤리티지에서 실시한 '찾아가는 대상중후군 출장검진'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앞으로 홈즈리더가 주민과 활발한 소통을 통해 그간 구정의 손길이 미처 닿지 못했던 부분을 일러주면, 구가 최선을 다해 빈틈을 메워 건강과 행복을 꼭 채워주겠다"라고 전했다.

'빠기'서비스는 2024년 1월부터 이용할 수 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앱을 내려받거나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내년부터 손쉽게 폐기물 배출 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각종 행정 절차에 불편함이 없는 주민 입장에서 잘 살피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 서초구 공공디자인&아이디어 공모전서 '서리풀리스 체어', '우리가 만드는 클린 양재천' 대상 선정

서울 서초구는 '2023년 서초구 공공디자인&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이미리 씨의 '서리풀리스 체어'와 유소연 씨의 '우리가 만드는 클린 양재천'을 각각 대상으로 선정했다.

앞서 구는 '도심 속 자연과 조화로운 휴게시설 공공디자인'을 적용하기 위해 지난 8월 ▲청년 대상 '공공디자인 부문' ▲주민 대상 '디자인 아이디어 부문'으로 나눠 공모전을 진행했다.

이후 심사위원회 심의를 열고 '공공디자인 부문' 16점과 '아이디어 부문' 20점 총 36점을 선정했다.

먼저 '청년 대상 공공디자인' 부문에는 이미리 씨의 '서리풀리스 체어'가 대상을 차지했다. '서리풀리스'는 상서로운 풀 '서리풀'과 모든 것을 의미하는 '풀리스(fullness)'의 합성어다. 등받이와 팔걸이가 없는 의자 형태로 아름다운 작품성과 주변 조화, 그리고 가변적 구성을 갖춘 점이 특징이다. 특히 의자·테이블·헬터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점이 높은 점

수를 받았다.

최우수상에는 김가영 씨 외 2명의 '0 Zone:공존(共存)'과 유재성 씨 외 1명의 '우리 바빠(발빠)'가 선정됐다. '공존'은 서리풀 공원 상부에 생동감 있는 휴식공간 등 이동약자를 배려하는 동선 디자인이 적용된 점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 '우리 바빠(발빠)'은 주민참여형 꽃밭을 통해 자연과 주민들이 소통하는 장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심사위원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주민 대상 디자인 아이디어' 부문에는 유소연 씨의 '우리가 만드는 클린 양재천'이 대상에 선정됐다. 플로깅존 운영 등 참신한 아이디어가 돋보이고, 공공디자인을 통해 주민의 상시 참여가 가능하며 선한 영향력을 제시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후 구는 수상자와 이용 협약을 맺은 후, 내년 산책길과 하천변 등에 휴게 시설물 공공디자인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구는 지난달 27일 시상식을 열고 수상자들에게 ▲대상(청년 1팀, 상금 300만원 / 주민 1팀, 70만원) ▲최

우수상(청년 2팀, 상금 각 200만원 / 주민 3팀, 상금 각 50만원) ▲우수상(청년 3팀, 상금 각 100만 원 / 주민 6팀, 각 30만원) ▲아차상(청년 10팀, 각 20만원 / 주민 10팀, 각 10만원) 등 총 1,700만원의 상금과 상장을 수여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공모전에 선정된 디자인들이 향후 주민들에게 일상 속 편리함과 휴식공간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며 "앞으로도 참신한 공공디자인 작품과 아이디어를 발굴해 일상에서 예술이 되고, 예술이 일상이 되는 문화예술 도시 서초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이홍수/기자



# 65세 이상 어르신은 코로나19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주세요!



## 어르신은 왜 접종이 필요한가요?

- 변이바이러스에 의해 코로나19 감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 새로운 바이러스에 다시 감염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 65세 이상 어르신은 여전히 위험합니다.**
  - 65세 이상은 65세 미만에 비해 치명률이 약 40배 높습니다.
  - 2022년 사망원인 3위는 코로나19로 65세 이상 어르신이 91.9%로 나타났습니다.
    - \* 통계청, 2022년 사망원인통계 결과(2023.9.21.)
  - WHO, 미, 영, 일, 호주 등에서도 65세 이상 어르신의 예방접종을 권장합니다.
- 이번 신규 백신은 현재 발생하는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맞춤형 백신입니다.**
  - 기존 백신에 비해 현재 발생하는 변이 바이러스에 최대 4배 효과가 높습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면 입원·사망 위험을 약 1/20로 줄일 수 있습니다.

## '23-' 24절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은?

<b>접종백신</b>	현재 변이에 맞춘 신규백신(XBB기반)						
<b>권고대상</b>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 및 종사자   <b>접종대상</b>   12세 이상(이전 접종력과 관계없이 누구나 접종가능)						
<b>접종일정</b>	2023.10.19.(목)~2024.3.31.(일)						
	<table border="1"> <thead> <tr> <th>접종 일정</th> <th>접종 대상</th> </tr> </thead> <tbody> <tr> <td>2023.10.19.(목)~2024.3.31.(일)</td> <td>65세 이상, 12~64세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 및 종사자</td> </tr> <tr> <td>2023.11.1.(수)~2024.3.31.(일)</td> <td>그 외 12~64세</td> </tr> </tbody> </table>	접종 일정	접종 대상	2023.10.19.(목)~2024.3.31.(일)	65세 이상, 12~64세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 및 종사자	2023.11.1.(수)~2024.3.31.(일)	그 외 12~64세
접종 일정	접종 대상						
2023.10.19.(목)~2024.3.31.(일)	65세 이상, 12~64세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 및 종사자						
2023.11.1.(수)~2024.3.31.(일)	그 외 12~64세						
<b>접종장소</b>	위탁의료기관(병 의원) 및 보건소 - 사전 예약 없이도 당일 바로 접종이 가능합니다. - 사전예약도 가능합니다: 1339 전화예약 및 누리집(https://ncvr.kdca.go.kr) 접속 (대리 예약 가능)						



**꼭꼭, 코로나19 백신과 인플루엔자 백신을 같이 맞아도 될까요?**

- ▶ 가능하다면 두 백신을 같은 날 동시에 맞으실 것을 권고합니다.
- ▶ 지난 동절기 65세 이상 어르신 중 같이 맞은 분들의 이상사례 신고율은 코로나19만 맞은 분들에 비해 접종부위 통증 등이 약 40% 낮았습니다.



# 강원도, 산업융합 · 신산업 촉진을 위한 규제 해소방안 논의

## 강원특별자치도 ·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실, 기업규제개선 합동토론회 개최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 해소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와 산업통상자원부(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실)가 만났다.

강원특별자치도는 12.1 오후 2시 춘천세종호텔에서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실과 함께 산업융합, 신산업분야 규제애로 발굴 및 개선을 위한 합동토론회를 가졌다.

올해 상반기(3.24.) 개최된 도·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간 신산업 활성화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 및 토론회에 이은 두 번째 만남이다.

이날 자리에는 이주연 강원특별자치도 기업호민관, 윤정민 국가산업융합센터 산업융합기반실장을 비롯해 유관기관, 각계 전문가, 기업대표 등 20여명이 열린 논의를 펼쳤다.

토론회에 앞서 당면 토론의제 중 하나인 소양강댐 수열에너지 실증센터 방문하여 에너지 절감 연구 현황을 직접 점검하기도 했다.

본 토론회에서는 소양강댐 용수 온도차를 활용한 수열의 재생에너지 인정범위 확대와 재난·응급상황시 휴대용 진단방사선장비(X-ray) 취급 범위 확대 안건 2건이 제시되어,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한편 토론회를 주재한 이주연 강원특별자치도 기업호민관은 지난해 12월 위촉된 이후, 도내 18개 시군 130개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68건의 규제안건을 발굴하는 등 성과를 가시화하고 있으며,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안건들은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부처에 직접 제사함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동원/기자

# 원강수 원주시장, 국비 확보 막바지 총력전

## 예산안 합의 앞두고 김완섭 기재부 차관과 만나 원주시 주요 국비 사업 관련 간담회 가져

원강수 원주시장은 4일 국회를 방문하여 2024년 예산안 합의 전 국비 확보를 위한 막바지 총력전에 나섰다.

원강수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원주 출신 김완섭 기재부 차관을 만나 지역 현안 사업에 국비가 최대한 증액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주요 증액 요청 사업으로는 강원 남부권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강원오페라하우스 건립 15억, 지속가능한 미래모빌리티 조성을 위한 미래차 전장부품·시스템 반도체 신뢰성 검증센터 구축 43억 등이 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인 2일을 넘기는 등 정부 예산안 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더욱 적극적으로 국회, 중앙부처 등과 소통하며 국비를 확보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는 순간까지 국비 확보에 끝까지 집중해 시민의 행복을 위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원주시는 올해 세종방문의 날 운영을 통해 정부예산 편성 일정에 맞춰 중앙부처와 국회를 방문하며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고, 특히 하반기에는 광역지자체, 중앙부처, 기재부, 지역국회의원 등과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해 역대 최고 국비를 확보했다.

김정환/기자



# 일본에서 만나는 충남 대표 문화유산

## 도·시즈오카현 우호교류 협정 10주년 기념 특별전 ‘성신교린의 재발견’ 개최

충남도는 일본 시즈오카현과 우호교류 협정 10주년을 맞아 내년 1월 12일까지 시즈오카에서 ‘충남 문화유산 특별전, 성신교린의 재발견’전(展)을 연다고 4일 밝혔다.

일본 시즈오카현 시미즈 마린빌딩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특별전은 일본과의 교류사를 중심으로 충남의 역사·문화 관련 중요 유물들을 선보인다.

도는 문화교류가 활발했던 고대 백제시대와 한일 문화교류의 상징인 조선통신사 관련 유물 등 60점과 영상 10점, 도내 초등학생 미술작품 100점을 준비했다.

전시 주제는 △충남 역사 개관 △고대 한·일 교류사(백제-왜) △충청감영과 호서예학 △충남의 조선통신사 △도와 시즈오카의 미래이다.

대표적인 전시 콘텐츠는 201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신미통신일록(辛未通信日錄)’을 비롯해 ‘충남의 사계’ 미디어아트, 조선통신사 실감 콘텐츠 등이다.

도와 시즈오카의 미래를 주제로 전시하는 미술작품 100점은 지난 10월 7일 열린



한일 문화 교류 초등학생 미술대회 수상작으로, 전시실 벽면을 가득 메우고 있다.

도와 시즈오카현은 일본 학생들이 그림에 화답하는 메시지를 적는 공간을 마련, 전시를 통해 소통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지난 2일 열린 개막식에는 김기영 도 행정부지사, 김낙중 충남역사문화연구원장, 공형식 주일한국문화원장 등 도와 일본 시즈오카현 관계자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일본 측에서는 이데노 쓰토무 시즈오카현 부지사, 나카자와 기미히코 시즈오카현의회 의장, 기사다 히로유키 시즈오카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참석해 충남 문화유산 전시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시즈오카는 나·당연합군에 의해 백제가 멸망한 뒤 663년 백제 부흥군과 나·당연합군의 최후 전투였던 백강 전투에 2만 7000여 명의 구원군을 출항시킨 백제 원군 총본부이자 출항지이다.

조선통신사를 다녀온 인물 중 충남이 연고지인 경성(慶暹), 신유(申濤), 홍계희(洪啟禧), 김인겸(金仁謙) 등의 유물이 시즈오카 청건사(세이켄지)에 다수 소장돼 있다.

도와 시즈오카는 이러한 인연을 계기로 2013년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했고, 10년 동안 활발한 교류 활동을 펼쳐 왔다.

김기영 행정부지사는 개막식 환영사에서 “도와 시즈오카는 고대 백제시대부터 깊은 인연이 있다”며 “앞으로 문화교류 등 다양한 협력을 통해 그 인연이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 박경귀 아산시장 “청소년합창대회” 이순신 정신 배우는 자리 되길

## 2일, ‘아트벨리 아산 제1회 전국 청소년 이순신 창작 합창경연대회’ 개최

아산시는 2일 경찰인재개발원 안병하 홀에서 ‘아트벨리 아산 제1회 전국 청소년 이순신 창작 합창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이순신 장군의 고장 아산을 알리고 장군의 청년기를 기억하고자 전국 청소년 합창단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날 합창대회는, 1차 심사를 통과한 4개 팀의 하모니로 채워졌다.

경연은 제시곡 5곡 가운데 1개, 자유곡 1개 등 총 두 곡을 각각 선택해 펼쳐졌다. 제시곡 중 4개는 올해 4월 열린 ‘제62회 성웅 이순신 축제’에서 ‘이순신 기억하기 프로젝트’를 통해 선정된 창작곡이다.

이들 곡은 당시 공모를 통해 당선된 4편의 창작시를 전국의 실력 있는 작곡가들이 지원해 만든 순수 창작물로서, 이순신 축제와의 연결성과 지속성을 갖는다.

경연 무대에는 △인천서구립 소년소녀합창단 △천안시 소년소녀합창단 △안산시 소년소녀합창단 △안성중학교 소년합창단 △동상 방축 청소년합창단 등이 각각 수상 영광을 안았다.

김원호/기자



# 충북 출생아 수 증가율, 7개월째 전국 1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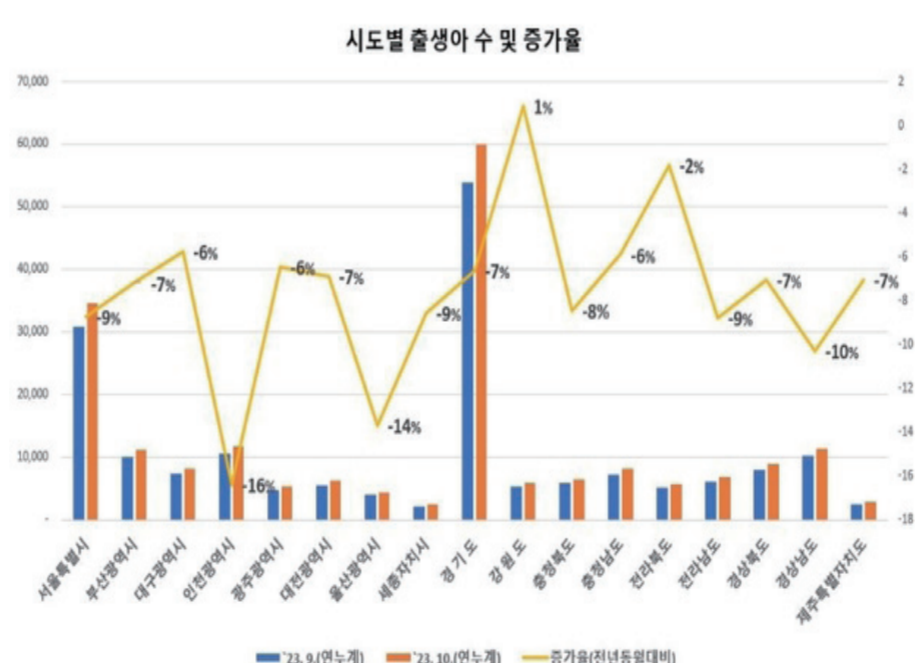
## 전국 출생아 수 증가율 -7%대에도 충북만 증가, 165만 인구 기대

충북에도 출생아 수 증가율이 10월에 전국 최고를 기록하며 7개월째 전국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 특히, 지난해 같은 달과 대비한 전국의 출생아 수 증가율은 -7.5%임에도 충북은 유일하게 증가하고 있는 점이 돋보인다.

충북의 출생아 수 증가율이 꾸준히 높은 것은 도와 11개 시·군이 협력하여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출산·육아수당 1천만원 지급, 전국 첫 난자 냉동수술비 지원과 임신부 예우 조례 제정 등의 과감한 임신·출산 친화 시책의 효과로 도는 보고 있다.

이러한 출생아 수 증가율에 힘입어 충북의 인구도 계속 늘어나 2023년 10월 말 기준 1,642,613명이며, 특히 민선 8기 16개월 동안 8,805명이 늘어나 165만 인구 시대의 개막을 기대하게 하고 있다.

충북의 인구는 2013년 160만 명을 넘



충북의 인구는 2013년 160만 명을 넘긴 이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며 2019년 10월에는 164만 명 이상을 기록하기도 했으나, 164만 1천 명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다시 2020년부터 소폭 감소하여 163만 명대에서 정체하다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차츰 회복하여 금년 6월에 164만 명을 다시 넘고, 9월엔 164만 1천 명을 넘더니 10월엔 164만 2천 명을 훌쩍 넘어섰다.

# 태백시, 2024년(2023년 실적) 정부합동평가 대비 제4차 정량지표 실적향상 보고회 개최

태백시는 지난 1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이상호 시장 주재로 2024년(’23년 실적) 정부합동평가 대비 제4차 정량지표 실적향상 보고회를 갖고 정량지표별 추진 상황 점검 및 미달성 지표 달성 방안을 마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보고회에는 지표담당부서장은 물론 부서간 연계지표 달성을 위해 실·과·소·동 35개 부서장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평가 지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지표별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전 부서가 협조하여 실적을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 실천 전략을 논의했다.

태백시는 정부합동평가 정량지표 실적제고를 위해 담당자와 1대1 컨설팅을 진행하고, 미달성 지표 부서를 방문해 독려하는 등 정부합동평가 정량지표 실적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정부합동평가는

우리 태백시가 1년 동안 추진한 주요 시책에 대한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 받는 것”이라 전하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좋은 성적을 기록할 수 있도록 전 부서는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태백시는 ‘2023년(’22년 실적) 정부합동평가’ 결과 강원도 우수시에 선정되어 재정인센티브 1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유상근/기자



### 충남도 '세계 최대 수소 플랜트' 세계와 만나다

충남 보령에 건립 추진 중인 세계 최대 블루수소 생산기지(플랜트)에 글로벌 기업과 국제기구가 힘을 보태기로 했다.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 참석 등을 위해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 중인 김태홍 지사는 2일(이하 현지시간) 두바이 엑스포 시티 블루존 한국홍보관에서 로저 마르텔라 미국 GE 베르노바 부사장, 도미니크 루즈 프랑스 에어리퀴드 부사장, 권형균 SK E&S 부사장, 김광일 한국중부발전 부사장 등과 청정 블루수소 글로벌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 협약식에는 김상협 대한민국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파티흐 비를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 데이비드 리빙스턴 미국 에너지 수석고문 등도 참가해 보령 블루수소 플랜트 건립에 대한 지원의 뜻을 밝혔다.

이번 협약은 보령 블루수소 플랜트 건립 관련, 각 기관·기업 간 협력을 약속하기 위해 맺었다.

MOU에 따르면, 도는 행정 지원과 인허가를 협력하고, GE와 에어리퀴드는 수소발전 기술 및 자금 조달, 주기적 공급 등을 협력키로 했다.

중부발전과 SK E&S는 플랜트 건립과 수소 생산·유통·활용 인프라 구축 전반에 대한 투자 및 운영을 맡는다.

이날 협약식에서 김태홍 지사는 "대한민국 석탄화력발전소의 절반이 위치해 있는 충남은 전국에서 탄소배출량이 가장 많은 불명예를 안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지난해 도지사 취임 후 충남이 안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선포한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는 탈석탄 에너지 전환과 산업 재편, 탄소중립 관련 연구개발(R&D) 기관 유치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또 "이번 협약은 탈석탄 에너지 전환과 산업 재편의 첫 출발이라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이 자리에는 김상협 위원장과 강경석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지방정부 대표로 충남도지사가 참석했다"라며 "이는 이번 협약을 대한민국 중앙과 지방정부가 보증한다는 의미가 있다. 협약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충남도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보령 블루수소 플랜트는 SK E&S와 중부발전이 2026년 말까지 5조 원을 투자해 보령발전본부 북부 회차리장 62만여㎡의 부지에 건립한다.

이 플랜트에서는 연간 25만 톤의 수소를 생산, 20만 톤은 수소연료전지 발전에 투입하고, 5만 톤은 액화 후 자동차 충전용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블루수소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간 200만 톤 규모의 이산화탄소는 포집 및 액화한 뒤, 액화이산화탄소 수송 선박을 통해 해외 폐가스전에 저장, 탄소 발생 저감 효과도 올린다.

도는 이 플랜트가 건설되면 300개의 일자리가 신규 창출되고, 관련 산업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정근/기자

### 성남시, 바이오헬스분야 수출 계약 50억 실적 쾌거

'성남바이오헬스케어 국제 컨벤션'에서 현장계약 23억, MOU 27억 체결



성남시는 12월 1일 막을 내린 '2023 성남 바이오헬스케어 국제 컨벤션'에서 현장 계약과 업무협약(MOU) 체결 등 390만 달러(약 50억 원)에 이르는 수출계약을 달성했다.

전국 최대의 바이오헬스케어 인프라를 보유한 성남시는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판교 그레비티 호텔에서 열린 바이오헬스케어 국제 컨벤션에서 15개국 바이오헬스케어 분

야 바이어 50명과 성남시 유망 기업 58개사가 참여한 전시관과 상담회를 운영했다.

상담회에 참여한 의료가사 공급장치 제조 및 설치 전문기업인 엠엠에이코리아(대표 이상현)는 베트남 의료기관에 180만 달러(약 23억 원)의 의료 산소 발전장치 납품 계약을 체결하는 쾌거를 이뤘다.

친환경 워터히팅솔루션 전문기업인 어셈랩(대표 김동욱)은 미국 화이트랩스(White Labs Concierge Lab Services)사와 100만 달러(약 13억 원)의 워터히터 살균수 생성기 납품 관련 MOU를 체결하는 등 성남시 4개 기업이 미국, 중국, 일본 등 해외 바이어와 총 210만 달러(약 27억 원)에 이르는 구매 관련 MOU를 체결했다.

또한 컨벤션이 열리는 동안 미용 의료가기와 기능성 화장품 분야에서 770만 달러(약 100억 원)의 상담실적 등 총 229건의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해 추가 수출계약 성사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글로벌시장의 경쟁 심화로 해외 진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국제 컨벤션은 성남시 관내 기업의 앞선 기술력과 가능성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남시의 우수한 의료 산업 자원을 바탕으로 바이오헬스분야의 국제 협력 네트워크를 발전시켜

한국이 바이오헬스케어 선도국으로 부상하는데 성남시가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성남시가 주최하고 성남산업진흥원이 주관한 이번 바이오헬스케어 국제 컨벤션 행사는 판교 그레비티 호텔, 분당헬스케어혁신파크, 킨스타워, 광역형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지원센터 등 총 4곳에서 동시 개최되어 바이오헬스분야의 최신 산업 동향과 기술을 조망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지난달 29일 개막식에서는 성남시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의 미래를 담은 홀로그램 비전 선포식을 통해 '의료산업과 디지털 기술의 융합으로 여는 건강한 미래'라는 성남시의 비전을 참석자들에게 선보였다.

이튿날인 30일에는 바이오·의료 정보학 및 데이터 과학 분야의 저명인사인 예일대의 마차도(Lucila Ohno-Machado) 교수가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의 의료데이터 활용 및 협력 연구'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해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의료서비스에 대한 경험을 나누는 기회가 됐다.

성남시는 2018년부터 매년 바이오헬스 분야 국제행사를 개최해 왔으며,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성남 바이오헬스 혁신 클러스터'의 한 축으로 국제 컨벤션사업을 더욱 확대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김범상/기자

### 서울시, 세계가 인정한 최고의 마이스(MICE) 도시... 9년 연속 수상 쾌거

글로벌 관광 전문지 '글로벌트래블러(GT)' 구독자 선정 '세계가 인정한 최고의 마이스 목적지'

서울이 9년 연속 '세계 최고의 마이스(MICE) 도시'로 선정돼 올해도 어김없이 글로벌 마이스 선도도시로서의 위상을 증명했다. 9년 연속 수상은 전례 없는 기록인 만큼, 마이스 대표 도시 서울의 글로벌 영향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점에서 이번 수상이 갖는 의미가 더욱 크다.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글로벌 관광 매체인 '글로벌트래블러(Global Traveler)'가 개최한 '2023 글로벌 트래블러 리더 서베이 시상식(Global Traveler Tested Reader Survey Award 2023)'에서 서울이 9년 연속으로 '최고의 마이스 도시(Best MICE City)'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글로벌 트래블러(Global Traveler)는 미주 지역 럭셔리 비즈니스 관광 전문 잡지로, 매년 관광·마이스 업계 종사자 등 구독자 30여만 명 대상 투표를 통해 마이스 도시, 항공사, 호텔 등 분야별 최고를 선정하고 있다.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올해를 마이스 시장 회복의 원년으로 삼고 총 8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마이스 분야에 대한 지원과 해외 마케팅을 적극 추진해왔다. 그 결과, 다수의 대규모 국제회의 및 인센티브 행사를 서울로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세계 최대 로봇 관련 국제회의인



'2027 IEEE 국제로봇자동화 학술대회(1만 명)', 경제학계 올림픽으로 불리는 '2025 세계경제학자 대회(4천 명)' 등 총 24건의 국제회의를 서울로 유치했다.

또한, 급성장 중인 기업회의·인센티브 관광 시장 선점을 위한 개최 지원금 확보 및 사전답사 지원 노력에 힘입어, 인도 최

대 기간 은행(3,257명), 인도네시아의 글로벌 보험회사(2,000명) 등 우수 글로벌 기업 임원진이 인센티브 관광 목적으로 서울을 택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비즈니스 행사 목적지로서 서울의 인지도와 호감도를 높이고, 잠재 마이스 수요를 발

굴하기 위해 해외 주요 도시 11곳에서 공격적인 해외 현지 프로모션을 추진하기도 했다.

주요 글로벌 전시회인 IMEX 프랑크푸르트, IMEX 라스베이거스, ITB Asia 등에 참가해 비즈니스 상담과 서울 마이스 설명회를 실시했다.

올 한해, 서울은 여러 글로벌 관광 마이스 어워드에서 다양한 최고 타이틀을 얻으며, 대표 마이스 도시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했다. 지난 6월 '최고의 아시아 레저 도시(Best Leisure City in Asia)'로 선정된 데 이어 8월에는 '세계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도시(Favorite Worldwide City)'로 2년 연속 선정, 10월에는 '세계 최고의 인기 여행지(Most Popular Destination of the Year)'로 연이어 선정되면서 관광과 마이스 분야를 아우르는 대표 목적지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

김영환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엔데믹 선인 이후 관광 부흥시대를 맞아, 서울이 다시 한번 최고의 마이스 도시로 세계인들의 인정을 받게 되어 영광"이라면서, "고부가 산업인 마이스 분야는 서울관광의 질적 성장을 위한 핵심 동력인 만큼, 서울시 차원의 마이스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 광명시, ESG 창업 도시 추진 박차... ESG 창업오디션 열어

소리드림, 스튜디오펠피, (주)그린플래닛, 베르데마르 등 4개 기업 참가

광명시가 기업과 도시의 지속가능한 동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ESG 창업가를 적극 육성하고 있다.

시는 지난 1일 오후 광명시창업지원센터에서 '2023년 광명시 ESG 창업 오디션'을 개최했다.

이번 ESG 창업오디션은 도전을 꿈꾸는 기업가들에게 새로운 비전과 지속가능한 성장 가능성을 제시하고, 유망한 ESG 기업을 발굴해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처음 도입됐다.

이날 오디션에서는 소리드림, 스튜디오펠피, (주)그린플래닛, 베르데마르 등 4개 기업이 참가해 기업별 피칭을 진행하고 참가한 투자심사역과 청중들로 부터 평가받는 시간을 가졌다.

소리드림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영어코칭 아이템이다. 운둔형 외톨이 예방과 사회독립 목적의 서비스를 병행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스튜디오펠피는 폐 유품 등 재생 펠프로 친환경 생활용품 등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주)그린플래닛은 IT 기반의 의료 전문 커서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베르데마르는 버려지는 산림 종자 부산물을 활용해 업사이클링 뷰티 상품을 만드는

기업이다.

이들 기업은 지난 11월 공모를 통해 참여했으며, 시는 오디션에 앞서 이들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모델과 사업계획서 고도화, 자금조달 로드맵 설정 등을 위한 IR 멘토링을 진행했다.

시는 본선에 진출한 4개 기업의 성장을 위해 다양한 특전을 지원한다. 2024년 광명시 창업자금 지원사업 선발 시 가산점을 주며, 창업지원센터 공용사무공간 입주 자격도 부여한다. 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문가 멘토링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ESG 경영은 기업과 도시의 동반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광명시 창업기업이 ESG 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ESG 창업 생태계를 꾸준히 조성하고 창업기업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명시는 ▲ESG 친화형 스타트업 육성사업 ▲스타트업 및 ESG 포럼 ▲ESG 창업스쿨 ▲ESG 창업오디션 등 다양한 ESG 창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윤용민/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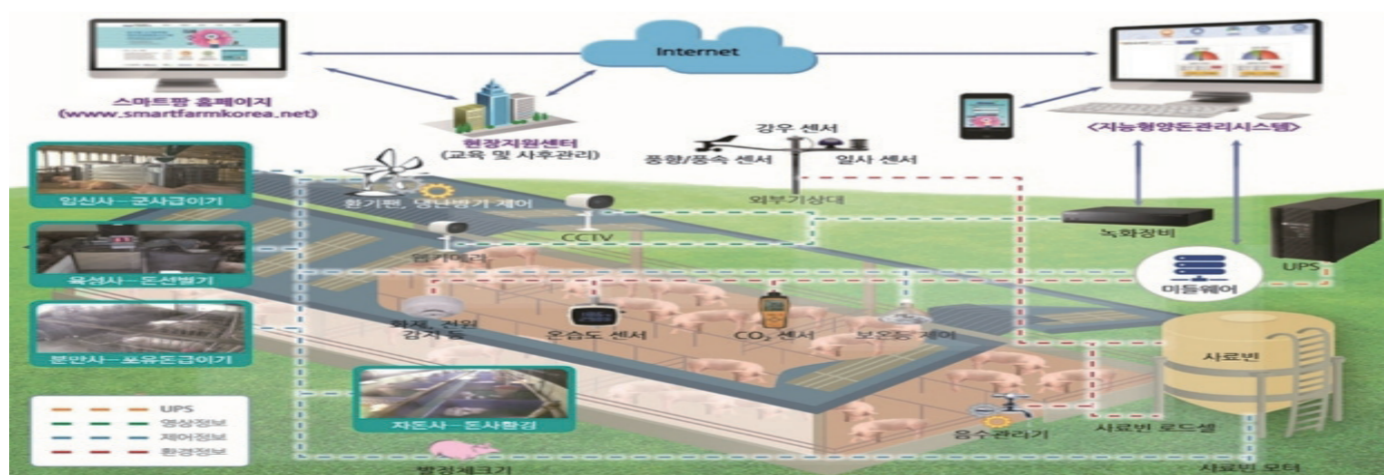
### 서귀포시, 2024년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 지원사업 공모

서귀포시는 축산농가에 스마트 축사시설 설치 지원으로 생산비 절감 및 최적의 사양관리 등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24년도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 지원사업 공모를 추진한다.

본 사업은 축산농가에 ICT(스마트통신 기술)를 접목시켜, 축사 내부에 온도조절 장비 및 CCTV, 사료관리기, 출하선별기, 자동급이기, 음수관리기 등 사양관리의 정보수집을 통한 원격모니터링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4년도에는 총사업비 5억 8200만원(국비 175 도비 116 용자 175 자부담 116)이 투자되며, 융자금 금리는 2%로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조건이다.

사업 추진과정은 컨설팅 업체가 사전 예비 신청된 축산농가를 방문하여 사업계획서 등 작성을 지원하고 축산용품질 평가원에 제출하게 되면, 검토결과 통



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대상자 확정 후 서귀포시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를 위하여, 서귀포시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ICT융복합 확산 지원사업 예비사업자를 12월 13일까지 모집중이며, 신청 접수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서귀포시는 ICT융복합확산지원사업

의 지능형 축사관리시스템 보급을 통해 최적의 사양조건을 충족하여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지원/기자



# 경북교육청, 건강증진 교육활동 전국 최고 수준 입증!

### 화동초 '최우수', 경북교육청·석포중 '우수', 고령교육지원청·봉화초 '장려' 수상



경북교육청은 교육부에서 주최한 '2023년 학교 건강증진 교육활동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화동초등학교가 '최우수', 경북교육청과 석포중학교가 '우수', 고령교육지원청과 봉화초등학교가 '장려'를 각각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교육부가 주관해 매년 실시하는 이번 공모전은 시도교육청과 학교별 특성에 맞는 학생 건강증진 교육활동·교육 프로그램 등의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 공모전은 최근에 학생이 투약부터 마약 유통까지 가담하는 등 청소년 마약범죄가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활동 단독 주제로 실시했다.

전국에서 응모한 기관(학교) 중 총 14개 우수사례를 선정한 이번 공모전에서 경북교육청은 최우수 1개, 우수 2개, 장려 2개 등 총 5개 우수사례를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최우수를 수상한 화동초등학교는 '알고 거절하자! K.N.O.W 하는 건강 학교 만들기'라는 주제로 1년간 교육과정과 연계해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경북교육청은 2010년부터 시작한 건강증진 교육활동 전국 단위 공모전에서 14년 연속해서 수상했다.

특히, 2016년 이후 8년 연속하여 최우수 이상을 받아 경북교육청 건강증진 교육활동이 전국 최고 수준임을 입증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공모전에서 수상한 학교와 담당자에게 감사와 축하한다"라며 "학교 건강증진 교육활동 프로그램이 지역사회 건강증진 중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하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울산 강북교육지원청, 강북 초등 관리자 학습공동체 활성화 지원

### 강북교육지원청, 전문적 학습공동체 성과나눔회 열어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지원청은 초등학교 관리자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힘쓰고 있다.

관리자 전문적 학습공동체는 다양한 학교별 여건과 상황에 맞는 사례를 공유하고 보다 나은 해결 방안을 고민하는 소통 창구의 역할을 수행한다.

초등 관리자 전문적 학습공동체 11팀(관리자 10팀, 전문직 1팀)을 구성해 생태환경교육, 인성교육, 미래 교육 탐구 등 다양한 연구 주제로 독서 토론, 선진지 견학, 연수·강의 등을 지원했다.

강북교육지원청은 지난 1일 대회의실에서 강북 지역 초등 관리자 전문적 학습공동체 회원 30명을 대상으로 성과나눔회를 열었다.

이날 성과나눔회는 전문적 학습공동체가 1년 동안 공동 연구하고 실천한 주제를 공유해 함께 성장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 전문적 학습공동체 회원들은 팀별로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각 공동체의 발전적 운영 방안을 함께 고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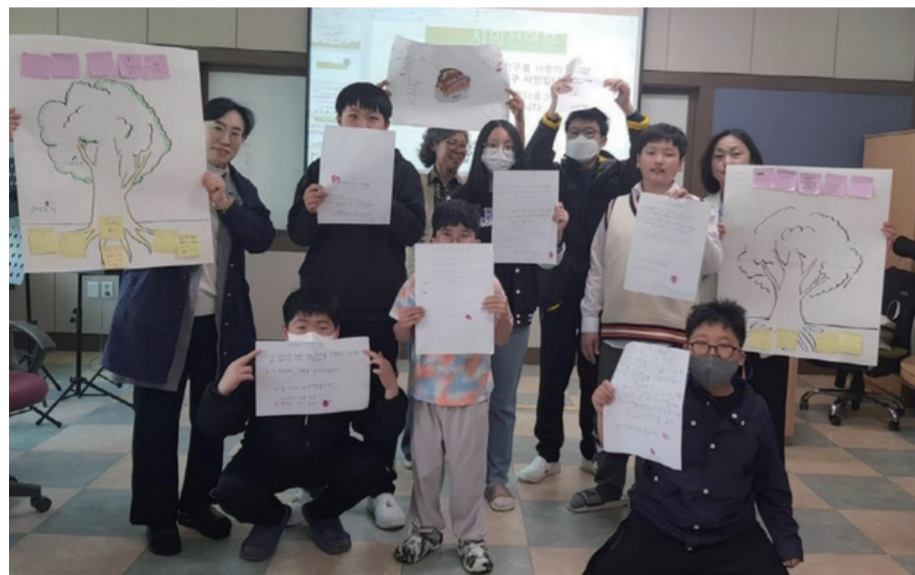
강북교육지원청은 수렴된 의견을 내년도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계획에 반영해 현장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다.

강북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동으로 학교관리자의 학교경영 능력을 신장하고 함께 성장하는 시간이 됐기를 바란다"며 "내년에도 전문적 학습공동체가 활성화되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황규진/기자

# 경북교육청, 통합교육으로 모두의 성장을 견인하다

### 장애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함께하는 학교 운영 성과 나눔



경북교육청은 장애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함께하는 통합교육 운영을 위해 '정다운 학교와 어울림 학교'라는 협력적 교육 모델을 운영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통합교육은 장애와 비장애를 구별하지 않고 모든 구성원이 공감하고 배려하며 상호소통하는 학교 문화 형성과 수업모델의 개발을 통해 구성원 모두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이다.

경북교육청은 이러한 통합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올해 정다운 학교 5교와 어울림 학교 10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정다운 학교는 일반교사와 특수교사 간의 교육 과정적 협력과 모델 개발을 통해 장애 학생의 지도 역량을 제고하고 통합교육을 실천하는 학교이다.

경북교육청은 포항 인덕초, 문경 점촌중앙초, 상주 청리중학교 등 5교를 공모를 통해 정다운 학교로 지정하고 교당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특히, 청리중학교는 물리적 통합과 사회적 통합, 교육과정·교수활동 통합 부분을 유기적 통합으로 끌어냈을 뿐만 아니라, 특수교육 대상학생과 장애에 대한 올바른 태도, 가치관 정립을 위해 교사와 장애 학생, 비장애 학생,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가 모두 함께 교육활동에 참여하기도 했다.

아울러, 청리중학교는 교육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특수교사와 일반교사가 함께 참여하는 교수-학습 협력 방안 모델을 개발하고 다양한 방안으로 실천한 점이 우수한 사례로 꼽혀 교육부 주관 성과보고회에서 우수 모범 사례로 선정되어 발표하기도 했다.

어울림 학교는 장애 이해 교육과 통합교육 활성화 사례 발굴, 장애인식 개선 교육, 장애 이해 행사 등 다양한 형태의 통합교육을 실천하는 학교이다.

경북교육청은 경주 계림초, 봉화 법전중앙초 등 10교를 어울림 학교로 지정하고 5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어울림 학교에서는 특수교육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공감하고 배려를 통해 자연스럽게 특수교육 대상학생과 일반학생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이 행복하게 다 같이 나아가는 교육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특수교사와 통합학급 교사 간의 긍정적 상호협력관계를 통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안정적인 통합교육 환경 마련이 필요하다"라며 "경북교육청은 모두가 함께 나아가는 어울림 세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영양교육지원청, 미래 인재의 꿈을 키우는 영재 선발 검사

### 2024 영양교육지원청부설영재교육원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검사 실시

영양교육지원청은 2023년 12월 2일에 2024학년도 영양교육지원청부설영재교육원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검사를 진행했다.

이번 영재 선발 전형은 영재교육종합데이터베이스(GED)시스템을 통해 원서를 접수한 29명을 대상으로, 담임교사가 정규교육과정 내에서의 학습 과정과 성취도를 관찰하여 선정하는 교사 관찰 추천제와 한국교육개발원이 개발한 영재성 검사지, 심층면접문항지를 활용하여 이루어졌다.

선발 결과는 다가오는 12월 20일에 발표될 예정이며, 검사를 통해 선발된 학생들은 2024년 3월부터 12월까지 120시간의 초등창의융합과 초등인문 과정에 대한 영재교육을 받으며 각자의 재능을 개발할 예정이다.

영양교육지원청영재교육원 김유희 원장은 "미래 사회를 이끌어 나갈 우리 학생들이 조기에 각자의 재능을 발견하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투명한 선발 과정을 통해 선발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영재교육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 부산교육청, 숨어있던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 82명 지원

### 교육활동 침해행위 전수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변호사 선임, 형사고발 등 지원

부산시교육청이 교육활동을 침해당하고도 숨어있던 교원들의 현황 적응과 복귀를 돕기 위한 법적 대응, 상담 등 지원에 나섰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피해 교원 전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 교원들에 대한 지원을 마쳤다고 4일 밝혔다.

부산교육청은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4일까지 전제 교원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피해 교원 전수 조사'를 온라인으로 실시했다.

전수 조사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었지만 교원보호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교원보호위원회는 개최했지만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무고한 아동학대 고소·고발 ▲악성 민원 등 4개 분야로 진행했다.

이 조사에서 유치원 4명, 초등학교 98명, 중학교 40명, 고등학교 20명, 특수학교 5명 등 167명의 교원이 피해 사실을 밝혔다.

이들은 심리상담 지원, 치료비 지원, 법률지원, 행정적 지원 및 제도개선 등 지원을 시교육청에 요청했다.

부산교육청은 167명 중 전수 조사에 참여했지만 지원을 희망하지 않은 76명, 대상자 파악이 어려운 9명을 제외한 교원 82명이 원하는 분야를 지원했다.

심리상담 12명, 치료비 7명, 법적 지원 19명, 기타 지원 44명에 대한 지원을 마쳐, 이들이 교육 현장에 다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 가운데 법적 대응을 위한 변호사 선임 2건,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한 학부모에 대한 시교육청 차원의 형사고발 3건을 지원했다.

추가로 1건의 형사고발도 준비 중이다.

특히, 시교육청은 82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원활한 현장 적응을 도울 방침이다.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은 "교육활동을 침해당한 교원을 지원하는 것은 교육청의 의무"라며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안전한 환경 속에서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사들을 돕는 것은 물론, 교사·학생·학부모 모두가 상호 존중하는 문화 조성을 통해 교육공동체를 회복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교육청은 전수 조사 조치 외에도 9월부터 현재까지 교원힐링센터 법률지원단을 통해 악성 민원 11건 대응, 법률지원 32건, 단위 학교 교원보호위원회 컨설팅 40회, 현장 민원 응대 45건, 기타 전화 컨설팅 279건 등을 지원하며 교육활동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김희태/기자

# 울진교육지원청, 행복 활짝 피어나는 에듀힐링 휴 캠프 운영

경상북도울진교육지원청은 12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초·중등 교사를 대상으로 숲과 함께하는 힐링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의 정서적 치유 경험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캠프는 교육 활동 침해, 직무 스트레스 등으로부터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교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1박 2일 일정으로 금강송에코리움에서 1·2부로 개최됐는데 초·중등 및 특수 교사 33명이 참여했다.

1부는 피아노(문찬승), 바이올린(성정인), 첼로(최윤희) 등으로 구성된 '라파트리오'가 출연하여 여러 명곡 연주로 마음의 안정과 힐링의 시간을 선사했다. 2부는 자연과 교감을 통해 회복탄력성을 증진하기 위한 차분 명상과 숲 테라피를 운영했다.

경상북도울진교육지원청은 이번 교원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교사들의 직무 소진을 예방하고,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함으로써 회복탄력성과 교육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상북도울진교육지원청 황석수 교육장은 "이번 에듀힐링 휴 캠프가 교사들이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정서적 안정과 건강을 회복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디딤돌이 되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더 많이 운영하여 행복이 더 많이 활짝 피어나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장문화/기자

# 경산교육지원청, 2023년 사랑의 김장 및 반찬 나누기 행사

### 교육공무직 조리사의 엄마손맛 김치와 인기반찬 학생들 손으로

경산교육지원청은 12월 2일 경산중앙초등학교 식생활관에서 경산 학교급식 교육공무직 조리사 연구회원 30명이 직접 담근 김치와 반찬 3가지를 포장하여 경산 관내 취약계층 학생 105명에게 전달했다.

이날 행사는 경산교육지원청 평생교육 건강과 급식업무와 교육지원과의 '교육복지 안전망사업'이 연계되어 이루어진 행사라 그 의미가 더욱 뜻깊었다.

경산 학교급식 '교육공무직 조리사 연구회'는 2013년부터 김장 나누기 행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지역 학생들을 위한 봉사활동과 지역 장애인 시설에서 조리 봉사활동도 꾸준히 행하고 있다.

태선미 조리사 회장은 "추운 겨울, 힘들고 지친 학생들이 따뜻한 겨울을 건널 수 있는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 다들 바쁘신데 좋은 일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이양균 교육장은 "따뜻한 손길로 준비한 음식인 만큼 학생과 가족들이 맛있게 먹으면 좋겠다. 12월 김장철을 맞이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조리사 연구회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사랑과 나눔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사랑을 나누는 어른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송광삼/기자



# 전남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상황 점검

4일 명창환 부지사, 시군 부단체장과 긴급 화상 회의



전라남도는 4일 고흥 육용오리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

출됨에 따라 명창환 행정부지사 주재로 22개 시군 부단체장과 방역 상황 화상 점검회의를 열어 상황을 진단하고 강력한 차단방역을 당부했다.

고흥 검출 농장은 육용오리 39일령 2만 2천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지난 3일 오리 폐사가 늘고 있다는 농장주의 신고에 따라 전남도동물위생시험소 정밀검사가 진행됐다.

검사 결과 4일 H5형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됐으며, 최종 고병원성 여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확인 중이다.

전남도는 신고 접수 즉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2명)을 투입해 해당 농장에 대해 출입 통제 및 소독 등 방역 조치를 하고, 전남도 현장 지원관을 파견해 주변 환경조사와 발생 원인을 분석했다.

또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H5 검출 단계에서 발생농장 육용 오리들을 선

제적으로 살처분했다. 발생농장 반경 10km 이내를 방역 지역으로 정해 이동 제한 및 소독도 하고 있다. 현재 10km 이내 가금 사육은 없는 상태다.

명창환 부지사는 "환경부에 따르면 11월 겨울 철새 개체 수는 98만 5천 마리로, 최대 도래하는 12~1월 157만 마리 대비 62.7% 수준"이라며 "겨울 철새의 추가 도래를 고려할 때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금농장 차단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어디서든 발생 가능성이 있는 상황으로 전 시군은 경각심을 갖고 철새 도래지와 소하천, 저수지 주변 도로와 농장 진입로를 매일 2회 이상 소독하고, 가금농장 출입 통제와 소독 강화, 의심 증상 발견 시 가까운 방역 기관 즉시 신고 등 수칙을 잘 지키도록 적극 홍보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종배/기자

# 박경귀 아산시장 "전용 구장 수요 급증, 복합공간으로 해소해야"

주간 간부회의서 '스포츠 인프라 종합계획' 연구용역 관련 주문



박경귀 아산시장은 4일 "스포츠 인프라 구축을 위한 종합계획을 준비 중인데, 2~3개 종목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공간'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박 시장은 이날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주간 간부회의에서 "주말마다 각종 체육 행사에 참석하면, 전용 구장을 요구하는 동호인들의 목소리가 높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아산시에 활동 중인 총 65개 종목을 위해 각각의 전용 구장을 건립한다는 건 재정 규모나 물리적 공간 확보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박 시장의 분석이다.

박 시장은 특히 "내년 상반기까지 스포츠 인프라 구축 종합계획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그에 앞서 브레인스토밍을 갖고 합리적인 인프라 확충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자칫 기대한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특정 종목에 치우치지 않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전문가와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해달라"고도 했다. 이와 함께 박 시장은 읍면동별로 진행

하던 연말 김장 나눔 행사를 시 차원에서 통합 개최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삼성이 1만 포기 이상 대규모로 김장 행사를 했는데, 올해부터 중단했다. 김장 행사가 없던 읍면동은 취약계층에 전달할 김치가 부족하게 됐다"며 "그래서 내년부터는 시 차원에서 합동 김장 행사를 열고, 읍면동별 할당량을 배분하려 한다"고 예고했다.

박 시장은 또 연말 인사발령과 관련 "5급 승진 대상자 가운데 이순신 리더십 아카데미를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직원들이 많았다"며 "'이순신의 도시'의 간부 공직자가 되려는 사람으로서 자세가 부족하다. 이들은 승진을 고려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이 밖에도 박 시장은 △시군 평가 지표 중 '자활근로 참여자의 탈수급 및 취·창업률' 저조 요인 분석 △온양온천시장 공영주차타워 임직원 주차 금지(온양온천역 하부공간 이용) △버스 승강장 전면 개보수 전수조사 철저 △도시개발계획 수립 시 공공공기 필수 반영 △아산삼은쌀 신제품 대외 품평회 도전 △100인 100색전 현장 점검 등을 지시했다.

김원호/기자

#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부패 카르텔은 반드시 깨뜨려라!"

대구미술관장 공석 8개월 사태에 일침, 반드시 책임 묻겠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12월 4일 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대구미술관장 공석 사태가 8개월째 이어지고, 재판 수행 과정에서도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가 이어지고 있다. 즉시 미술관장 공모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라"며, "또한, 문화예술진흥원 특별검사가 진행되고 있고, 감사결과에 따라 형사처 책임도 물어 부패 카르텔을 반드시 깨뜨려라"고 지시했다.

공공건설단의 'TK신공항 사업시행자 지정 추진' 보고 후, "SPC를 구성함에 있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각각 주관사가 있어야 한다. 공공부문에는 공항공사를 중심으로, 민간부문에는 삼성그룹을 중심으로 재무적 투자(FI), 건설투자(CI)를 하게 해, 주관사를 중심으로 국내 굴지의 건설사들이 같이 협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중양의 메이저 건설사와 함께 중심적 역할을 하는 지역의 건설사는 지분을 많이 할당하고, 나머지 지역 건설업체는 동등하게 지분을 갖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행정국의 '2024년 상반기 정기인사 운영 방향' 보고 후, "실.국장들에게 인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은 조직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정실 인사로 인해 향후 책임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며, "5

급 이상 공무원의 40% 이상 발탁 승진을 하도록 하는 것은 조직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이다. 무사안일.소극행정에도 승진하던 관행은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50% 정도까지도 확대해서 발탁 승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라"고 주문했다.

경제국의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설립 추진' 보고 후, "공사 설립과 도매시장 이전을 담당하는 것이 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업무의 주가 될 것이다"며, "대구시 공무원들의 파견을 통해 공사 업무의 초기 안정화를 도모하고, 정상제도에 조기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교통국의 '출시 1주년 대구로택시 타기 운동 전개' 보고 후, "거대 독점 플랫폼업체인 공룡 카카오에 맞서 성공적으로 정착한 대구로택시가 출시 1주년을 맞게 됐다"며, "대구로택시 타기 운동으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전국 최고의 공공형 택시 호출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올해 계획했던 사업을 다시 한번 점검해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라"며, "특히, 달빛철도특별법 제정 등 이번 주 국회에서 결정되는 사안이 많으므로, 대구

미래 50년 번영을 위한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긴밀하게 대응해달라"고 강조했다.

윤근수/기자



 의성군

# 항공물류중심 공항도시 의성



# 영양 들어다보기

한걸음 다가갈수록  
영양의 속살이 느껴집니다  
하루라도 좋고  
며칠 묵으시면 더 좋습니다  
찾아낼수록 매력이 샘솟는  
**영양**으로 오세요



# ZOOM

들어다볼수록 매력이 솟아나는 영양나들이... 마음을 두고온 **영양**, 사진에 담아온 **영양**

<p><b>길</b> 삶과 숨이곳에서 아름답게 영양나들이 의 대표격에 영양나들이</p>	<p><b>물</b> 영양의 푸른하늘 영양나들이를 즐기다... 영양 대표격에 영양나들이</p>	<p><b>빛</b> 별이 쏟아지는 영양의 밤하늘을 즐기다... 영양 대표격에 영양나들이</p>
<p><b>얼</b> 시공간의 대가 영양서식지</p>	<p><b>맛</b> 사백년 이어온 반가의 레시피... 장계향의 음식디미방</p>	<p><b>심</b> 자연과 벗하던 선비의 기품이 깃들다... 영양연서정</p>
<p><b>감동을 이어가는 스토리텔링! 영양나들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영양의 자연</b>_일월산, 선바위와 남이포, 삼의계곡, 수하계곡, 본신계곡, 침벽공원, 측백수림, 외씨버선길</li> <li>• <b>영양의 역사</b>_음식디미방, 서석지, 두들마을, 주실마을, 감천마을, 지경마을, 금촌마을, 검산성, 옥산마을</li> <li>• <b>영양의 박물관/공원</b>_영양국제밤하늘보호공원, 반딧불이천문대, 영양생태공원, 영양고추홍보전시관, 일월산자생화공원, 영양풍력발전단지, 흥림산자연휴양림, 양양산촌생활박물관, 분재수석야생화전시관</li> </ul>		<p><b>숲</b> 한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숲... 조지훈과 주실마을</p>

